

광주호 호수생태원 나들이 명소 '인기'

거리두기 하향 따라 2월 재개장
3월말까지 2만5000여명 찾아
다양한 동·식물 생태 과정 한눈에
2024년까지 20만㎡ 추가 확장

광주호 호수생태원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나들이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호수생태원의 생태습지 등 주제별 단지와 광주호 주변을 산책할 수 있는 누리길을 찾는 탐방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호수생태원은 2006년 광주호 상류에 18만㎡ 규모로 조성된 이후 연간 30여 만명이 방문하는 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등 외부활동에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도 방역 수칙을 지키며 12만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사회적거리두기가 1.5단계로 하향됨에

따라 지난 2월 16일 재개장했으며, 3월 말까지 평일 하루 평균 400여 명, 주말 1500여 명 등 총 2만 5000여 명이 방문했다.

호수생태원 내엔 사계절 변화를 감상할 수 있는 다양한 꽃과 나무들이 가득해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광주호 주변 다양한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조성된 호수생태원에는 나무 6500그루, 초화류 18만 7000본, 생태습지, 자연관찰대, 구절초 동산 등 테마별 단지를 갖추고 있다.

특히 다양한 초화류가 식재돼 봄에는 수선화와 노란꽃망초, 여름에는 금사매와 수련, 가을에는 꽃무릇과 구절초 등이 만개해 계절별 변화를 느낄 수 있고, 메타세쿼이아 숲길과 버드나무 군락지, 습지 등 다양한 동·식물 생태 과정도 한눈에 들어온다. 이 때문에 어린이들의 자연생태학습장과 가족 단위 나들이객의 휴식공간으로도 인기다.

호수생태원을 관리하는 푸른도시사업소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도록 올해 봄

꽃 1만여 본을 심었으며, 앞으로도 계절별 꽃을 심어 호수생태원의 사계절 변화되는 모습을 선사한다는 계획이다.

광주호 주변 자연풍경을 걸으며 느낄 수 있는 누리길도 호수생태원의 인기몰이에 한몫을 하고 있다.

25억원을 투입해 2018년부터 조성한 누리길 산책로는 지난해 12월 1.8km로 완공됐는데, 기존 생태 탐방 산책로와 연계돼 광주호의 풍경을 만끽할 수 있다.

광주시는 이 밖에도 100억원을 투입해 호수생태원 규모를 20만㎡ 추가 확장하기로 했으며, 2017년부터 사유지를 매입해 문화재 발굴조사 등 기본 사업절차를 밟고 있다. 2024년까지 사업을 마치면 광주를 넘어 호남을 대표하는 관광자원과 시민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정주형 푸른도시사업소장은 "광주호 호수생태원은 도심과 가깝고 접근성이 좋아 시민들이 즐겨 찾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힐링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주말을 맞은 지난 10일 광주호 호수생태원을 찾은 탐방객들이 누리길 산책로를 걷고 있다. 25억원을 투입해 2018년부터 조성한 누리길 산책로는 지난해 12월 1.8km 규모로 완공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폭우피해 막는다...장마철 대비 하수도 침수 예방 '박차'

광주시, 자치구와 하수 시설물 점검
파손 시설물 복구 46억원 조기 확보

광주시에 장마시즌 하수도 침수를 막기 위해 하수도 시설물을 집중 점검하는 등 사전 예방 작업에 나서고 있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13일까지 침수 예상 지역 하수도시설물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 지난해 발생한 침수피해 시설물

등 복구 상황과 하수관로 준설, 빗물받이 무단던개 제거 여부 등 하수시설물 관리 상태, 수방자재 확보 실태, 유관기관과의 비상근무 체계 구축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특히 '우기철 대비 하수시설물 점검계획'에 따라 지난 3월 각 자치구가 실시한 자체 점검 결과를 토대로 침수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가 미흡하거나 보수가 필요한 하수시설물을 사전 점검하고, 침수 예방사업도 진행한다.

점검 후 정비가 필요한 하수시설물은 우기 전까지 정비하고, 하수관, 맨홀, 빗물받이 등 하수시설

물 보수와 준설(정소) 작업을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역대급 폭우 피해를 냈던 지난해 파손된 하수시설물을 복구하기 위해 46억원을 조기 확보하고, 침수 피해 지역과 하수시설물을 응급 복구하는 한편 올 장마철 전까지 완전 복구를 마칠 계획이다.

장우현 광주시 하수관리과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자연재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철저한 예방으로 하수시설물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호흡기바이러스 주의하세요”

광주 라이노바이러스 감염증
시 보건환경연구원 개인위생 당부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11일 "개학과 동시에 큰 일교차로 인한 면역력 저하로 라이노바이러스 감염이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질병관리청과 함께 매주 광주지역 호흡기환자 검체를 모니터링 하는 '인플루엔자 및 급성호흡기바이러스 병원체 감시사업'을 진행 중인데, 지난 3월 수집된 표본검체 170건 중 급성호흡기바이러스 검출률은 38.8%로 지난해(8.1%)에 비해 크게 늘었다. 특히 1월 34.0%에서 2월 20.9%로 감소하다, 3월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다.

주요 원인병원체는 라이노바이러스 36건(21.2%), 보카바이러스 16건(9.4%), 아데노바이러스 14건(8.2%) 등 순이다. 코감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라이노바이러스는 3월 2주차부터 10.3%, 3주차 23.7%, 4주차 23.7%, 5주차 30.6%로 검출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와 함께 트윈데믹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됐던 인플루엔자(독감)는 거리두기 정책과 마스크 등의 위생수칙 준수 등으로 지난해 2월 유행 종료 후 올해 3월까지 1건도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라이노바이러스는 피막이 없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저항성이 높고 바이러스 배출기간이 감염 후 3주까지도 길어 강도 높은 생활방역에도 불구하고 높은 검출률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올 94억원 투입 체육진흥 7개 사업

청년체육인재 육성·훈련비 지원 등

광주시는 "선수 경기력 향상 및 지역 체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체육진흥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전문체육진흥 사업은 전문우수선수·청년체육인재 육성, 전국체전 대표선수 훈련·종목단체 지원, 체육지도자·수영팀 운영, 학교체육진흥 등 7개 사업으로 진행된다. 광주시는 올해 예산 94억원을 투입한다.

우수선수의 타 시도 유출 방지, 약세종목 전력 강화를 위한 지원·영입 등을 위해 25개 종목 220여 명의 우수선수를 선정해 육성비를 지원한다.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예정 선수, 발전 가능한 지역 유망 청년선수들이 우수한 체육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14개 종목 청년체육인재 35명을 선정해 육성비를 지원한다.

전문체육지도자 30여 명을 고등부, 대학부, 일

반부에 각각 배치·지도토록 하고, 종목단체 운영 지원과 각종 대회 출전을 위한 선수 훈련 및 참가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선수들이 훈련에만 매진할 수 있는 안정적인 훈련환경을 조성한다.

꿈나무 육성을 위한 학교체육진흥 사업도 강화한다. 광주시는 이달 중 시교육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10여 개 학교 팀을 선정 지원한다.

광주시는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맞춤형 온라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제102회 전국체전 등 각종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에게 체력, 컨디션, 기술영상 등 다양한 훈련 정보를 제공하는 비대면 사업을 실시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는 2015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스포츠 도시"라면서 "앞으로도 선수들이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지역 체육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김장대전 김치 원부재료 납품업체 모집

해설·전통식품인증 업체 대상

광주시는 "14일부터 16일까지 2021 빗고을사랑나눔 김장대전 행사에 김치 원부재료를 납품하는 김치업체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모집대상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필수로 하고 공고일(7일) 기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광주시에 속한 업체 또는 법인 중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과 전통식품품질인증을 획득한 업체다.

올해 김장대전에선 비건김치도 판매할 계획으로, 비건김치인증을 획득한 업체도 참가할 수 있다.

김장대전 납품업체 신청을 희망하는 김치업체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빗고을김장대전 김치 원부재료 납품업체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접수기간 내 시 생명농업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빗고을사랑나눔 김장대전은 가족의 경제활동과

주거환경의 변화로 가정에서 김장하기 어려운 불편을 해소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2014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김장에 들어가는 배추와 원부재료는 100% 국내산만을 사용하고 업체별 맛의 차이에 따른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부터 세계김치연구소와 광주 세계김치축제 대령명사 수상자가 함께 개발한 '표준 레시피'를 활용하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국내 비건인구 증가와 식품 트렌드 변화에 따라 광주만의 이색김치 발굴을 위해 세계김치연구소와 '비건김치 공동 레시피'를 개발하고, 김장대전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김현중 광주시 생명농업과장은 "김장대전 납품업체 모집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김치업체들의 경제순환 부분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참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